

CES2024에 찾아보는 투자 기회

- 2024년 1월에 개최됐던 CES(Consumer Electronic Show)는 세계 3대 ICT 박람회로 150여개 국가의 4,000여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임. Tech 산업의 발전 방향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야하는 행사
- CES 2024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첨단기술과 접목을 통해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은 ‘All Together, All On’을 테마로 AI(인공지능)가 부각. 로봇틱스, 디지털 헬스, 지속가능성, Web 3.0,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선보임
-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AI가 확산된 이후 처음 열린 CES로 생성형AI, 온디바이스AI, 모빌리티,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전면 부각됨. 올해도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다수 참여해 자동차 산업과 타 산업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의 고도화 재확인
- 2023년이 생성형AI의 등장이었다면 2024년에는 생성형AI가 실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. AI&로봇 테마주, 반도체 등 관련 종목과 산업 전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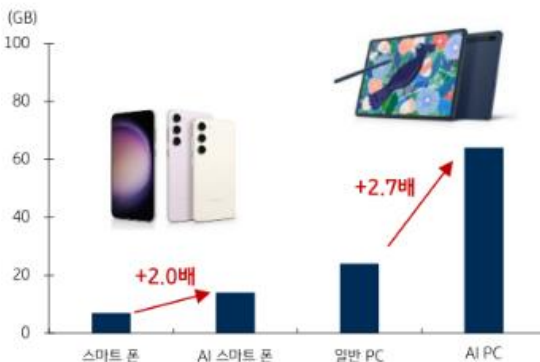
CES 2024 시사점: 미래 Tech 산업 발전 방향 ▶



- ▶ AI의 전 산업 적용에 따라,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기업의 전략 실행 본격화
- ▶ 모빌리티와 첨단 기술의 하이브리드 고도화, 완성차·타 산업의 co-work 가속화
- ▶ 인간을 둘러싼 ESG·지속가능성 부상과 함께 고령화(Aging)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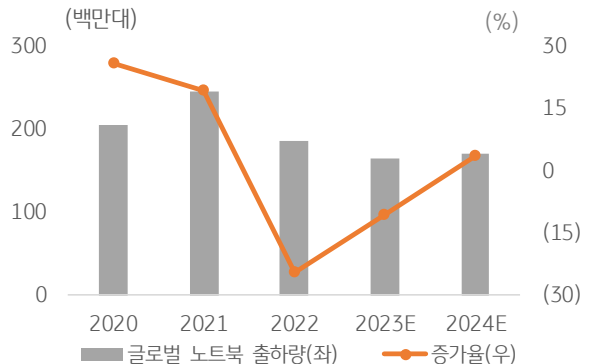
※ 출처: 삼성KPMG 경제연구원, KB자산운용

온디바이스 AI메모리 탑재량 2배 증가 ▶



※ 출처: KB증권, KB자산운용

AI 탑재 효과로 노트북 출하량 반등 ▶



※ 출처: Trend Force, KB증권, KB자산운용

CES 관련 KBSTAR ETF ▶

상품명	상장일	순자산총액 (억원)	총보수 (연)	투자포인트
KBSTAR AI&로봇	2023.10.24	278	0.40%	국내 AI 및 로봇 테마 핵심 기업에 투자
KBSTAR 미국반도체NYSE	2023.10.24	119	0.05%	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대표기업 30종목에 투자
KBSTAR 미국반도체NYSE(H)	2023.10.24	127	0.05%	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반도체 대표기업 30종목에 투자.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
KBSTAR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	2021.06.10	2,150	0.50%	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핵심 기업을 시가총액방식(최대투자비율 15%)으로 투자
KBSTAR 글로벌4차산업IT(합성 H)	2017.08.17	280	0.40%	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등 대형IT기업으로 구성된 S&P Global 1200 IT & Interactive Media & Services Index를 추종
KBSTAR IT플러스	2019.06.20	1,710	0.40%	코스닥 및 코스피 내 '소프트웨어', '하드웨어', '반도체', '디스플레이' 에 해당하는 IT 섹터 종목에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투자
KBSTAR 200IT	2017.12.08	86	0.05%	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중 정보기술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에 유동주식 수 가중 방식으로 투자

※ 출처: KB자산운용, ETF CHECK, 2024. 1. 15 기준

※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'투자광고 2024_037(다)'

※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,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
※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·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※ 이 금융투자상품<집합투자증권>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※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